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29 호

2020년 6월 15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Working Group) 모집
2. 기업 재생에너지 리더십 이니셔티브(Corporate RE Leadership Initiative, CRELI) 모집 (~6/30)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영상 메시지 제출 안내
4.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결과 공유 (6/2)

■ 본부 소식

1. 각국 지도자들, 비즈니스 리더 및 유엔 최고 책임자와 함께 코로나 19, 불평등, 기후위기 논의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리더스 서밋 참여 예정
2. [발간물] 해양관리 2030(Ocean Stewardship 2030) 보고서
3.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앰비션'을 정의하다
4.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 관련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성명

■ SDGs 소식

1. [COVID-19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KT
2. [Gender Equality Korea] 타깃 젠더 이퀄리티(TGE) COVID-19 퀴즈

3. [SDGs 솔루션] 탄소배출 가격책정을 통한 탈탄소화
4. [SDG 미디어 존]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유엔 및 기업이 수행할 과제
 - 사이러스 클라크(Cyrus Clarke) Grow Your Own Cloud 디자이너 외 3인

■ UNGC 회원 뉴스

1. "서울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없애겠다"
2. SKT "사회적 가치 1조8709억원 창출"...전년比 8.3% 증가
3. CJ제일제당 "친환경 패키징으로 '순환경제' 기여"
4. LH·에너지공단,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실증사업 착수

■ CSR 뉴스

1. 에너지 전환 3년... 신·재생에너지 시대 한걸음 가까워졌다
2. 기재차관 "그린뉴딜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3. 제러미 리프킨 "20년 내 탄소 제로로...한국은 자원-자질 충분"
4. "여성기업 환경, 태국·칠레보다 안 좋아"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Working Group) 모집

2019 년 협회가 런칭한 이슈별 네트워킹 및 동료학습 플랫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올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업과 인권', '반부패' 3 개 실무그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 3~4 회 진행되는 실무그룹을 통해 회원사들은 이슈별 동향을 파악하고 참여 회원사간 동료학습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그룹의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사는 6/26(금)까지 아래 링크에 관련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그룹 신청하기](#)

***기존 실무그룹 참여 회원사도 다시 한번 등록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실무그룹별 운영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Working Group) 운영 계획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및 동료 학습 플랫폼으로서 우리 기업의 UNGC 10대 원칙 및 SDGs 기여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업과 인권, 반부패 3개 실무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더 많은 이슈로 확대하고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무그룹 운영 방안

- 각 실무그룹은 리드기업, UNGC 연구팀, 이슈 전문가 등이 공동리더를 맡아 운영
※ 실무그룹 별 기업당 2인 참여 가능, CSR/지속가능경영 부서 및 유관 부서 참여
- 실무그룹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를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구성
- 연 3~4회 실무그룹 미팅 진행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 필요 (일정은 실무그룹별 탄력적 운영 예정)
- 실무그룹 내 그룹 활동을 통한 활발한 논의 장려 및 실용적인 결과물(발간물·툴·가이드라인 등) 도출

프로그램(안)



이슈 기반 역량 강화 및 Peer-Learning 플랫폼

<SDGs 실무그룹>

우리 기업의 SDGs 이행 및 기여 확대를 목적으로 SDGs 지식 플랫폼을 형성하고 선진 사례 발굴 및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함

- 글로벌 SDGs 이행 동향 공유
- SDG Action Manager 활용을 통한 기업의 SDGs 이행 현황 진단
- 자사의 사업특성과 연계한 목표 설정 및 이행플랜 수립 논의
- 유엔 총회 SDGs 이행 시사점 연구 및 주요 SDGs 발간물 스터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기업과 인권 국제동향에 대한 이해 및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주요 과제 및 해결책을 함께 모색함

- 국내외 인권경영 동향 공유
- 기업별 인권경영 이행 현황 및 도전과제 공유
- 기업과 인권 관련 정부 대응 및 시사점 공유
- 기업과 인권 관련 콘텐츠 학습 및 국제포럼 의제 논의

<반부패 실무그룹>

최근 반부패 법·정책 강화 동향 하에서 기업의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 반부패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

- 반부패 법, 정책, 규제 관련 동향 공유
- 반부패 이슈별 콘텐츠 소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공급망 실사 질문지 작성
- 국제 반부패 회의(IACC, 12/1~4) 및 반부패의 날(12/9) 기념 반부패 공동노력 캠페인

* 일정은 실무그룹별로 상이하며 사무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02-749-2149/50, gckorea@globalcompact.kr

2. 기업 재생에너지 리더십 이니셔티브(Corporate RE Leadership Initiative, CRELI) 모집 (~6/30)



기업 재생에너지 리더십 이니셔티브 소개 | What is the CRELI?

기업 재생에너지 리더십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Leadership Initiative: CRELI)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목표의 수행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CRELI 파트너기구인 WWF와 KoSIF, UNGC가 공동으로 구축한 이니셔티브이다. 기업이 공개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선언하는 행위는 경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CRELI는 다양한 기업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재생에너지 리더십 이니셔티브 수립 목적 | What is the purpose of the CRELI?

CRELI 파트너기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과 협업해왔지만, 더욱더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을 증진하고 정부 정책 및 기업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CRELI는 기업이 모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허브로서 역할을 제공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100이니셔티브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100%로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겠다는 의지를 기업이 선언하고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의 제시 및 실적 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 받는다. 2020년 5월 기준 구글, 나이키, 소니, 스타벅스, 켈로그, 코카콜라를 비롯한 234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미 최종목표인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한 기업도 있다.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REBA)

재생에너지 구매를 희망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자와 공급자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매 연합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수요 및 구매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서로 협력한다. 주요 목적은 에너지 소비자인 기업이 재생 가능한 청정 전기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모색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더욱 경쟁력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을 구축하는데 있다. 2020년 5월 기준 REBA에는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약 200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 재생에너지 리더십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 Benefits of joining the CRELI

CRELI는 이니셔티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기업은 파트너기구가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기회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 재생에너지 리더십 이니셔티브 운영 프로그램 | What does the CRELI offer?

CRELI에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세미나, 워크숍, 이해관계자 미팅을 통한 **기업의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 실무진 대상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고위직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공식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돕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분	내용	일정	비고
CRELI 런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F "Climate Action Conference"와 연계하여 "CRELI" 런칭 	2020년 6월 24일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의 실무진을대상 분기별 스터디 그룹 운영 	7, 9, 11월 중	개인 자격으로도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실무진 대상 가이드라인 발간 	12월	스터디그룹 내용을 기반으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4G Summit의 세션 중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 주최 	2021년 중	COVID-19로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GC Korea "Leaders Summit"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세션 진행 	11월	경영진 참여 세션 조정 가능
재생에너지 조달 향상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조달 원칙 발간 	하반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 정책입안자, 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비)공식 미팅 주최 	정책 도입 시기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을 포함 30개 이상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 관련 국회와 연계하여 포럼 개최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설정 지원을 위한 개별 미팅 진행 	수시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 | 기타 사항 문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
climate@wwfkorea.or.kr 070-7463-4244

기업 재생에너지 리더십 이니셔티브 참여하기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영상 메시지 제출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회원사 CEO 들이 자사의 코로나 19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영상 메시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회원사라면 누구나 68 개의 로컬 네트워크와 10,000 여개의 기업들에게 우리 기업의 아이디어, 조언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영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로, 기업당 최대 3개의 영상(주제당 1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대응(Response):** 코로나19는 귀사의 인력, 지역사회 및 기업 활동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6월 15일 기준 총 83개 기업 참여 | 주요 참여기업: Ford motor company, Enel s.p.a. 등)
- 2) **회복(Recovery):** 귀사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연속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월 15일 기준 총 38개 기업 참여 | 주요 참여기업: Inter-IKEA Group, Schneider Electric 등)
- 3) **복원(Resilience):** 복원력(Resilience)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6월 15일 기준 총 23개 기업 참여 | 주요 참여기업: T-mobile, Saint-Gobain 등)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UNGC 한국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EO 영상 메시지 업데이트



Andreas Maierhofer T-Mobile 폴란드 CEO

“B2B 산업에서 다른 기업들의 디지털화를 도와 디지털 플랫폼의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영상 바로가기](#)



Johann Weiland BMW Brilliance Automotive CEO

“우리는 비즈니스 운영의 융통성을 더욱 높여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유연한 생산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상 바로가기](#)



Sindhu Gangadharan SAP Labs India Managing Director

“SAP의 비즈니스 지원 및 클라우드 제공 팀은 업무 중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해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바로가기](#)

CEO 영상 메시지 제출하기

CEO 영상 메시지 보기

4.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결과 공유 (6/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그리고 탄소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제 5 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Climate Action Round Table, 이하 CART)'이 지난 6 월 2 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내외 동향 소개와 함께 특히 최근 EU 에서 발표한 EU Taxonomy 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표 세션은 ▲“Intro - 국내외 동향 업데이트: Before Corona/After Corona”_ 김태한 CDP 책임연구원 ▲“EU Taxonomy”_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BTi 배경 및 업데이트”_정서영 WWF 한국본부 기후-에너지프로그램 오피서 ▲“Outro-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계획 소개”_이수란 UNGC 한국협회 과장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발표 세션 이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홍윤희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보다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많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매우 어렵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며, “오늘 라운드테이블이 금융권 및 기업의 이해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변화에 기여(Commitment)를 하는 발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첫 발표는 코로나 전후 세계 경제의 변화를 주제로 금융을 매개로 한 기후변화가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CDP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19 이전 동향으로 국외의 NGFS(Network of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을 통한 녹색금융 촉진 권고안 발표, EU 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및 Green Deal 등을 소개했고, 국내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LEDS 추진 계획, 그리고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개발 등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동향으로는 EU 에서 회복 펀드 (Recovery fund) 구성과 국내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의 본격적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국제 리더십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위기 이슈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영향력이 한국에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번째로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EU 의 지속가능성 투자를 위한 분류 체계인 EU Taxonomy 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U Taxonomy 는 파리 협정 후 유럽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EU 가 세운 액션 플랜 10 개 중 하나로, 어떠한 경제활동이 6 가지 환경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위한 분류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우 소장은 EU Taxonomy 가 SDGs 와 파리협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톨이 되어 지속가능 투자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경제활동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분류체계/기준을 제공하여 저탄소,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금융접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서영 WWF 한국본부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오피서가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 (SBTi)의 배경을 설명하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업데이트했습니다. 정서영 프로그램 오피서는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로 나서고 있다”고 운을 떼며, 전세계

GDP 의 60%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기업의 리더십이 1.5 도 목표 (1.5°C Business Leadership Initiative)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Ti 는 2015 년에 WWF, CDF, UNGC, WRI 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세우고 기후변화대응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준과 목표 검증에 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정서영 프로그램 오피서는 “참여 선언”과 “목표 수립”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SBTi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감축 목표는 배출 범위 기준 및 목표수립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SBTi 는 점차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기업 상황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추세로 기업은 변화에 발맞춰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 후에는 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패널 토론 시간은 EU Taxonomy 가 국내 법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토의로 시작됐습니다. 김성우 연구소장은 “EU 국회에서도 아직 EU Taxonomy 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현재 한국형 Taxonomy 에 대한 논의와 그로 인한 한국 내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수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과장은 유럽의 재생가능 에너지 및 사회 기반 시설 기업인 ACCIONA 의 EU Taxonomy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본 분류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기후변화 관련 인증 기능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패널의 마지막 시간으로 WWF 의 안혜진 오피서는 WWF 의 유럽 지부가 EU Taxonomy 제정에 있어 High-Level Expert Group 와 Technical Expert Group 의 멤버로서 참여한 바 있다고 공유하며, 곧 EU Taxonomy 가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성 투자의 바이블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SBTi 에서 내세우는 지속가능성 관련 여러 정의 및 체계가 앞으로 많은 투자자 및 연계자들에게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을 더 순조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SBTi 의 목표 수립 방식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Scope 1, 2, 3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수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과장이 기업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Corporate RE Alliance, CREA, 가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CREA 는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선언과 그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얼라이언스로 WWF,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탄소공개프로젝트(CDP)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국내 기업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역량강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CREA 는 올해 6 월 24 일에 공식 런칭 됩니다.



본 라운드테이블은 기업의 기후변화와 기후행동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및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 19 로 인해 선착순 모집을 통해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신청자에 한해 관련 자료 및 발표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그린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동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익한 세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부 소식

1. 각국 지도자들, 비즈니스 리더 및 유엔 최고 책임자와 함께 코로나 19, 불평등, 기후위기 논의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리더스 서밋 참여 예정

6월 15-16일 진행되는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사회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콜롬비아, 보츠와나,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대통령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 주 진행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에서 수십 명의 CEO 및 유엔 최고 책임자들과 함께 세 가지 글로벌 위기인 건강, 불평등, 기후에 대한 민간 부문의 대응에 대해 논의합니다.



Angela Merkel
독일 총리

6월 15-16일 진행되는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한 유엔 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밋이 될 것입니다. 이미 100개가 넘는 글로벌 및 지역별 세션에 1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Recover Better, Recover Stronger, Recover Together”라는 테마의 올해 서밋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해 2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되며, 67개의 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 연사 및 참석자가 각국의 시차 및 언어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과 함께 열리는 올해 리더스 서밋은 기업, 시민 사회 및 유엔의 리더들이 SDGs 달성에 대한 야심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마크 카니(Mark Carney) 기후 행동 및 기후 금융 유엔 특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 COP 25, 26에서 임명되었던 기후 챔피언(climate champions) 곤잘로 무뇨스(Gonzalo Muñoz)와 나이젤 토픽(Nigel Topping)이 참여하여 기후 위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Ban Ki-Moon
The Elders 부위원장
제 8 대 UN 사무총장



Al Gore
Climate Reality Project 회장
제 45대 미국 부통령



Mark Carney
UN 기후 행동 및 기후 금융
유엔 특사

그 밖에 고위급 연설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폴 폴먼(Paul Polman)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의장; 볼라 아데솔라(Bola Adesola)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의장; 커먼웰스, 상공회의소, 네파드, 국제 무역 연맹, 국제해운회의소 회장; 일리안 미호브(Ilian Mihov) 인시아드(INSEAD) 학장; 피르만자(Firmanzah) 빠라마디나 대학교(Paramadina University) 교수 겸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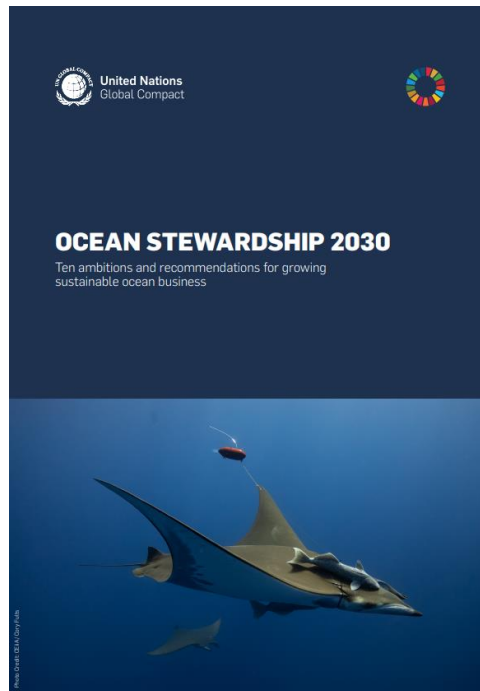
20개가 넘는 유엔기관, 기금 및 프로그램은 기업과 함께한 사업 결과물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의장, 유엔 사무총장과 부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기구 (ILO), 유니세프 (UNICEF),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인도지원국 (UNOCHA),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유엔환경계획 (UNEP),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대표자들이 참석해 식견과 통찰을 공유합니다.

확정된 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AB InBev, Accenture, Acciona, Ambev, ARPA, CP Group, Dilma, DNV GL, Ecolab, Ekos Group, Enel, En+, Green Delta Insurance, H&M, Investec, KENGEN, Kokusai Kogyo, Melvin Marsh, Ménara Holding, Natura, Olam International, PT Supra Boga Lestari Tbk, PVH, Russell Reynolds Associates, Savco, Schneider Electric, Solvay, Sterling Bank, TAHA, The Lux Collective, Volans의 CEO 및 Maersk와 Siemens의 이사회 의장

[원문 보기](#)

2. [발간물] 해양관리 2030(Ocean Stewardship 2030) 보고서



민간 부문과 유엔 기구 협력 아래 새로운 지침 공동개발... 해양 관련 산업군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10개의 앰비션 제시

2020년 5월 31일, 뉴욕, 유엔 본부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달 31일, 해양 관련 산업군과 정책입안자들에게 2030년까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해양관리 2030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올바른 기준의 수립, 투명성, 그리고 협력을 통해 식량 공급과 에너지 공급, 그리고 해상 운송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꾀하고, 해양 상태의 극적인 개선까지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관리 2030 보고서>는 6월 2일 진행된 “[지속가능한 해양 산업과 관련한 온라인 고위급 회의](#)”에서 공개되었으며, 회의에는 Amni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Erna Solberg 노르웨이 총리, Michael Lodge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Marco Lambertini 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 그리고 Rodolphe Saadé CMA CGM 회장 겸 CEO가 연사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해당 회의와 어젠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리 2030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에 돌입한 지금에도 아직 약 8억 명의 인구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바다는 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갖춘 식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무역의 약 90%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탈(脫)탄소 항해를 통해 무역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안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 해양과학 및 관련 데이터 공유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바다는 코로나 19로부터의 회복, 나아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동의 10년을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해양관리 2030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해 기업체들과 각국 정부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협력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5 가지 영역을 설정한 뒤 각 영역에 2 개의 앰비션을 결부시키며, 해양 관련 솔루션 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지배구조를 다루는 몇 가지 제언을 덧붙입니다.

Peter Thomson 유엔 사무총장 해양특사는 해양관리에 대해, “진정한 해양관리는 해양상태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챙기는 것이며, 우리는 해양의 보호와 해양자원의 이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uronext 의 CEO 겸 이사회 의장인 Stéphane Boujnah 는 “민간 부문이 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해양 관리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을 점점 자각해가고 있다”며, “〈해양관리 2030 보고서〉와 지속가능한 해양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s)의 지침은 투자자와 상장 기업들에게 해양에서의 책임 있는 사업활동을 위한 올바른 프레임워크가 되어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해양관리 2030 보고서〉는 300 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Global Goals, Ocean Opportunities, Mapping Ocean Governance and Regulation](#) 과 같은 간행물 발간에 함께해온 DNV GL 와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DNV GL 의 CEO 인 Remi Eriksen 은 이러한 〈해양관리 2030 보고서〉가 “지속가능한 해양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체 및 각국 정부들에게 분명하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해양 관련 이슈들에 있어 분야를 초월한 총체적인 대응을 할 것과, 더욱 담대한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양관리 2030 보고서〉는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3.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앰비션'을 정의하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충분히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일련의 비즈니스 벤치마크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벤치마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체적인 비즈니스 목표로 변환함으로써 기업이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야심찬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2020 년 다보스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SDG 앰비션(SDG Ambition)'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며, 6 월 9 일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회의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6 월 15 일~16 일 양일 간 진행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온라인 리더스 서밋을 일주일 앞두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리더스 서밋에서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대통령들, 23 명의 CEO 및 10 여명의 유엔 최고 책임자들이 함께 코로나 19,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한 민간 부문의 대응을 논의할 것입니다. 11,000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는 빈곤을 퇴치하고 지구를 보호하고자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회복한다면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모두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과 글로벌 벤치마크 이행에 대한 약속을 지켜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DG 앰비션이 1 차로 공개한 글로벌 벤치마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내 모든 직급에서의 성별 균형(Gender balance across all levels of management)
-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방출 방지(Zero discharge of pollutants and hazardous chemicals)
- 물 부족 지역 내 넷 포지티브(Net-positive) 임팩트(Net-positive water impact in water-stressed basins)
- 폐기물 매립 및 소각 중지(Zero waste to landfill and incineration)
- 모든 자재 및 제품 회수/재활용/재사용을 통한 100%의 자원 회수(100% resource recovery with all materials and products recovered and recycled or re-used at end of life)
- 1.5°C 행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n line with a 1.5°C pathway)
- 뇌물수수 범죄 철폐(Zero incidences of bribery)

Proposed SDG Business Benchmarks	SDG IMPACT		SCOPE		
	Primary	Additional	Operations	Products & Services	Value Chain
100% of employees across the organization earn a living wage			■		■
Gender balance across all levels of management			■		
Net-positive water impact in water-stressed basins			■	■	■
Zero waste to landfill and incineration			■		
Zero discharge of hazardous pollutants and chemicals			■		■
100% sustainable material inputs that are renewable, recyclable or reusable			■	■	
Science-based emissions reduction in line with a 1.5°C pathway			■	■	■
100% resource recovery, with all materials and products recovered and recycled or reused at end of use				■	■
Land degradation neutrality including zero deforestation			■	■	■
Zero incidences of bribery			■	■	■

<SDG 앰비션: 행동의 10 년을 위한 비즈니스 벤치마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발간물은 생활 임금, 삼림 벌채, 순환경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보다 야심찬 행동을 장려합니다. 향후 몇 개월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러한 벤치마크와 관련 구현 틀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및 비산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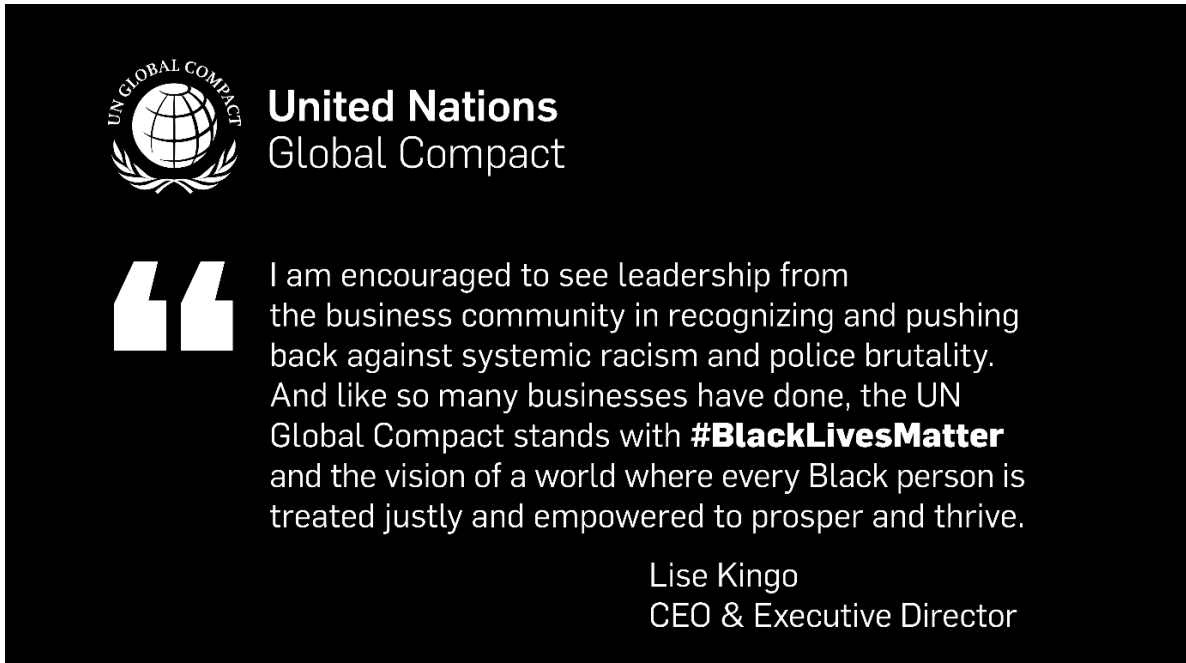
Accenture 및 SAP와의 파트너십으로 출범한 SDG 앰비션은 전 세계 선도 기업들이 야심찬 목표를 수용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핵심 비즈니스 관리와 사업 과정 및 정보 기술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우리는 전례 없는 세계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혁신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글로벌 벤치마크에 맞춰 목표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본 프레임워크는 발전을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옹호자로서 비즈니스 리더의 역할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야심찬 행동을 주류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와 SDG 앰비션 이니셔티브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sdg-ambition

원문 보기

4.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 관련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성명



유엔 본부, 뉴욕. 2020년 6월 2일 — 최근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책임자들을 규탄하며, 저는 “인종차별이 사회 내에 만연한 지금, 우리는 모든 인종차별적 행동과 표현에 대항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루빨리 인종차별적 사회구조를 해체하고, 인종차별적 제도들을 타파해야 한다”고 하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20년 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들이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서로 연대하고, 인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이끌어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 원칙](#)들은 기업들이 국제적인 인권 규범 수호와 지지에 동참하고 인권 침해 사안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원칙을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 전역의 기업들과 끊임없이 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진압은 더 이상 음지에 놓인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성은 이제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이슈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와 경찰의 과잉진압 이슈를 인지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리더십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는 #blacklivesmatter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또한 함께할 것이며, 모든 흑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함으로써 차별, 폭력, 그리고 증오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더 나은 모습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KT



UNGC 가입: 2006. 7. 18

KT는 지난 130여년간 대한민국 ICT를 이끌어온 통신종가로서, 고객 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주도하는 국내 최대 종합 통신 사업자입니다.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KT는 초고속 인터넷부문 약 41%, IPTV부문 약 46%, 무선통신사업 약 30%(MVNO 제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T그룹은 ICT역량 및 혁신기술과 42개 그룹사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하는 기업, 다양한 사업의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착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내 1위 인공지능(AI)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가지니'를 통해, AI 아파트/호텔 등 AI Space 시장을 선도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T는 경제적 가치 창출뿐 만 아니라,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NCSI(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개 부문 1위에 오르며 4관왕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맞춰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KT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네트워크 품질과 AI 등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을 꾀하며, 기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T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해 '16년에 런칭한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GEPP) 및 사회공헌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염병확산방지 프로젝트(GEPP)

GEPP 런칭 후 감염국 경유자의 검역률 증가로 국내 확산방지에 기여 중 입니다. 또한 국내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을 통한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성 다양한 지원 활동

(1~2월) 우한교민 격리시설 지원

- 1, 2차 우한교민 격리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구호키트 170세트 제공(1.29)하였습니다.
- 3차 우한교민 격리시설인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 상황실 및 우한 교민 객실' 내 IPTV 303건, 인터넷 39건, 와이파이 96건 등 통신 서비스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2.11)

(2~3월) 대구시 협력을 통한 대구 의료진 지원

- 대구지역 파견 의료진 대상 단기 휴대폰 140대 및 통화료 무료 지원하여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KT단독)
-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병상으로 추가 지정된 대구 보훈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긴급 상황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KT 파워텔 LTE 무전기를 긴급 지원하였고, 의료진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월) 119 구급대원대상 KT사랑의 밥차 운영

-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119구급대원(약 300명) 대상으로 KT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 운영하였습니다.

(3월) KT, ICT서비스로 '코로나19' 극복 지원

- KT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발맞춰,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지원 프로모션,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기관에 화상회의 솔루션 무상 지원, 전국 120개 대학 인터넷 용량 긴급 증설 및 전담인력 투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KT는 대구, 경북지역 고객사 중 최근 온라인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해 서버 증설이 필요하거나 단기간 사용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CDN 서비스를 무약정 및 단기 계약(1개월 이상)으로 제공하며, 제공 기간인 5월 31일까지 요금할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KT 클라우드 신규회원 또는 가입 후 1개월 이내 고객에게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00만원 상당 쿠폰을 지원, 화상회의 솔루션, 영상상담 솔루션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 지원, 비즈메카 화상회의 서비스도 무상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KT 화상회의는 별도 장비 구축 없이 PC나 모바일에서 실시간 회의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일대일, 다자간 회의, 세미나 모드를 지원하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KT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기관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KT는 이미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터넷 용량을 긴급 증설하고, 전담 인력을 투입하였고, 사이버 개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ICT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지원체계를 준비했습니다.

(3~4월) [사랑나눔 1탄] 광화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랑나눔 도시락 제공

- 코로나19 여파로 주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늘고, 유동인구가 줄면서 광화문 인근 식당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T는 코로나19로 크게 70%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식당들을 돕기 위해, KT 광화문 사옥 인근 식당을 통해 직원 중식용 도시락 주문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KT 인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사랑나눔 도시락'을 제공하여, 사회 구석구석의 상처들을 함께 극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5월) [사랑나눔 2탄] 사랑의 농산물꾸러미 판매(온라인/오프라인)

-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정된 온라인 개학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 납품업체에서 구매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를 임직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급식 납품업체들은 3월부터 개학 준비에 나서야 했으나, 온라인 개학으로 납품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T는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의 추천을 받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생산자 단체 2개를 이번 오프라인 장터 참가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를 준비한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온라인 개학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원 월급까지 걱정하는 상황”이었다며, “KT에서 우리 업체에 먼저 손을 내밀어줘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5~6월) [사랑나눔 3탄] 사랑의 소극장 티켓 판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예술계, 특히 소극장의 피해가 심각하여,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극장 10개 극단 티켓을 선구매후 15,000원 티켓을 임직원들이 3,000원에 구매해(회사지원금 12,000원) 소극장들을 도왔습니다. 이는 임직원 참여를 통해 소극단 지원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안으로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코로나19 전담 종합 상황실 구성하여, 전사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행동요령 One voice 커뮤니케이션 및 전담 대응하였습니다.
- 출장 및 해외 방문 금지 또는 최소화를 통해 임직원 감염경로를 차단하였습니다.
- 전직원 50%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임직원들의 경우, 상황 안정 시까지 100% 재택하였으며, 동시 감염 risk 예방을 위해 주요 직책자 및 임원도 순환 재택 실시하였습니다.
- 마스크 미착용 시 사옥 출입 제한 및 초반 위급 상황 시 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
- 출근시간 사옥 유입 임직원 대상 열화상 카메라 운영관리를 통한 체온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2. [Gender Equality Korea] 타깃 젠더 이퀄리티(TGE) COVID-19 퀴즈



타깃 젠더 이퀄리티(TGE) COVID-19 퀴즈는 기업의 COVID-19 대응이 성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고 보다 포용적인 회복 전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10 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본 평가는 기업의 COVID-19 대응에 있어 성 포용성(Gender-inclusive)과 성 인지성(Gender-sensitive)을 고려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계 500 여 기업 및 기관이 해당 퀴즈를 통해 자사의 젠더 관점 COVID-19 대응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TGE COVID-19 퀴즈를 통해 우리 기업의 COVID-19 성평등 대응에 관한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COVID-19 퀴즈 바로가기](#)

성평등 이행을 위한 Next Step

▶ STEP 1: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GEK)에서 국내외 기업 내 성평등 정책,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성평등 기업 사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GEK 는 우리 기업의 성평등과 여성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UNGC 한국협회가 2020 년 4 월에 런칭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본 플랫폼은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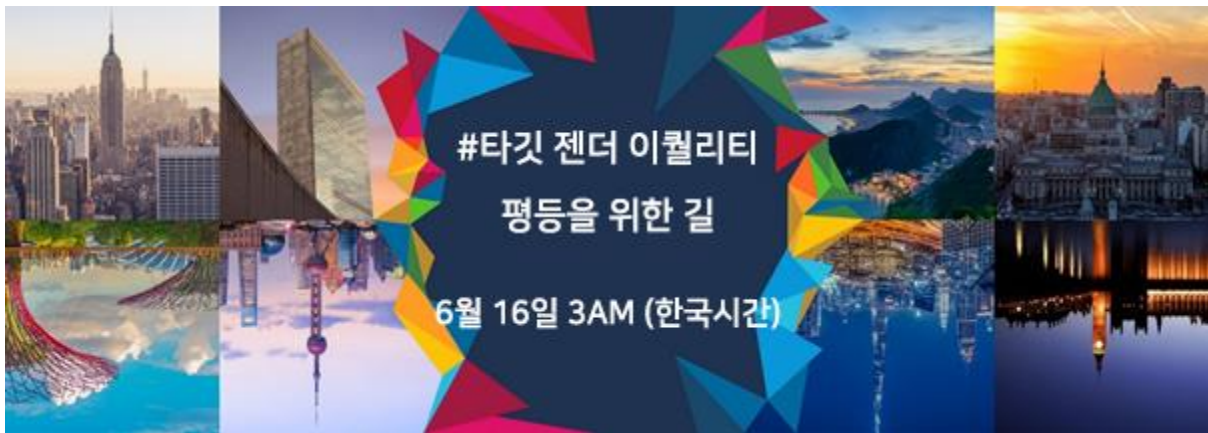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GEK\) 살펴보기](#)

▶ STEP 2:

'#타깃 젠더 이퀄리티(TGE) - 평등을 위한 길' 세션에 참여하세요!



6 월 15 일에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에서 '#타깃 젠더 이퀄리티 (TGE) - 평등을 위한 길' 세션이 열립니다. 본 세션을 통해 글로벌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연사로 함께하는 심도깊은 기업 내 성평등 방향성 논의에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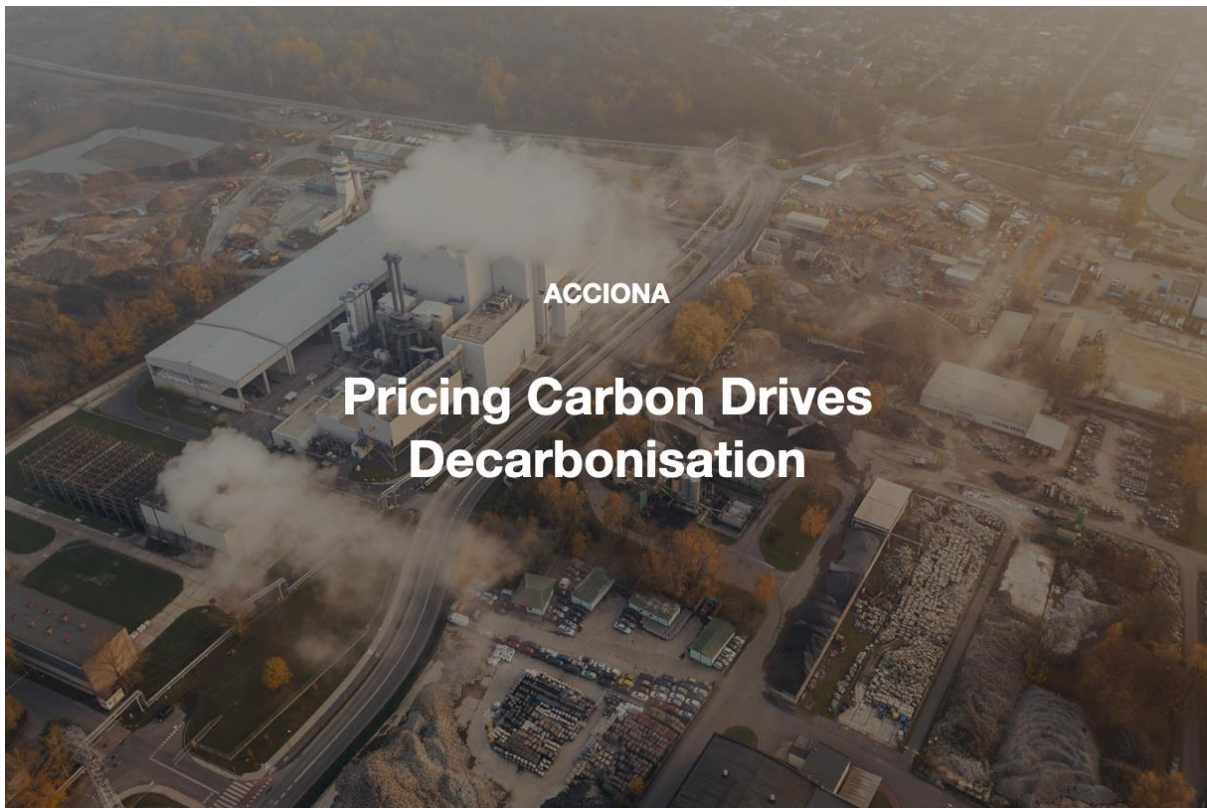
위 세션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연사들은 기업 내 여성 리더십과 대표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성평등 정책 이행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세션은 온라인 리더스 서밋을 신청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아래 등록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UNGC 회원 - 무료, UNGC 비회원 - \$99)

세션 상세 프로그램

03:00	개회 사회자: 무심비 칸요로(Musimbi Kanyoro), UNGC 임원 및 유나이티드 월드 칼리지(United World Colleges) 회장
03:05	환영사 나흘라 발지(Nahla Valji), UN사무총장 시니어 젠더 고문
03:10	라운드테이블: 평등을 위한 길
03:45	토론: 경험을 통한 배움 오픈 채팅과 질문 기능을 통해 참석자들의 라운드테이블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
03:55	폐회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더 알아보기

3. [SDGs 솔루션] 탄소배출 가격책정을 통한 탈탄소화



*악시오나는 탄소배출 가격책정을 통해 내부 경영 결정 및 외부 투자 결정에 변화를 불러와
당사의 “1.5°C 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 노력에 기여를 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및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글로벌 기업 악시오나(ACCIONA)는 2016 년 기업 내 탄소배출 가격 책정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전세계 악시오나의 지사들은 자사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지불은 보통 유엔의 청정 개발 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발행한 탄소 크레딧으로 이루어지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크레딧은 일종의 내부적 세금처럼 작용하며 각 지사가 자사의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탄소 배출 감축의 방식을 미리 규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 형태를 지니고 있는 지사들이 알맞게 감축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탄소 가격 책정에 더해서 악시오나는 “쉐도우 탄소 가격 책정(Shadow carbon price)¹”을 통해 추후 예정된 프로젝트나 투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기후 리스크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격 책정은 미래에 이행될 프로젝트의 탄소 배출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예측해 정해지며 악시오나의 “1.5°C 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 노력과 사업 성장이 동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악시오나는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 자사의 탄소 배출량을 반토막 냈으며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목소리 높여 지지하고 있습니다.

¹ 공급망 내 탄소 배출량이 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매기는 것

악시오나의 1.5°C 를 위한 노력

악시오나는 보다 야심찬 1.5°C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과학 기반의 탄소 감축 목표를 책정한 초기 기업 중 하나이며 이 목표치들은 모두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악시오나는 “기후에 대한 배려 이니셔티브”에도 몸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4. [SDG 미디어 존]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유엔 및 기업이 수행할 과제

- 사이러스 클라크(Cyrus Clarke) Grow Your Own Cloud 디자이너 외 3 명



< 좌측부터 사이러스 클라크(Cyrus Clarke) Grow Your Own Cloud 디자이너; 파르함 바사이엘리(Parham Vasaiely) Aptiv 사업부문장; 앤 로젠버그(Ann Rosengerg) SAP Next-Gen 및 SAP 대학 연합 글로벌 책임자 겸 유엔 파트너십 담당 선임 부사장, 제프 캐버노(Jeff Kavanaugh) 인포시스 지식 연구소 편집장, 다이앤 다인(Dianne Dain) UN 기술 혁신 연구소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 즉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파르함 바사이엘리(Parham Vasaiely) Aptiv 사업부문장, 앤 로젠버그(Ann Rosenberg) SAP Next-Gen과 SAP 대학 연맹 글로벌 책임자 겸 유엔 파트너십 담당 선임 부사장, 제프 캐버노(Jeff Kavanaugh) 인포시스 지식 연구소(Infosys Knowledge Institute) 편집장, 다이앤 다인 (Dianne Dain) UN 기술 혁신 연구소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사이러스 클라크(Cyrus Clarke) Grow Your Own Cloud 디자이너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네 사람은 **청년들이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해결책이 실행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멘토링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자기소개 및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질문에 캐버노는 “우리는 유엔 및 여러 단체와 함께 일하며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및 팩트 기반 논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중요한 목표를 다룰 때 인간 중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로젠버그는 “우리는 작년에 ‘Reboot the Earth’ 이니셔티브를 할 때 믿을 수 없는 협력을 경험했다. 학계와 함께 일하며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합치면 17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사이엘리는 “Aptiv에서는 차량용 안전 제품 개발 및 자율주행 기능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들을 여러 분야에서 데려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기대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기술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크는 “우리는 데이터를 비 탄소 배출 방식으로 저장하고 식물과 다른 유기체를 사용하여 탄소를 흡수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살펴보는 흥미로운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나는 디자이너이자 미래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진행한 ‘Summer of Solutions’의 우승자이기도 하다. 우승을 통하여 유엔 및 다양한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배울 플랫폼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세대간 소통을 극대화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키우며 우리의 자원, 경험, 멘토십을 제공해 효과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클라크는 “지금까지 많은 포럼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좋은 해결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시각 외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며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사이엘리는 “기업뿐 아니라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한 청년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들을 도와야 한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장에 내놓기까지의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한 툴, 인프라,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줄 조언도 많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멘토링을 함으로써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과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는 “최근의 포럼 동향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여성이 무대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와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작년의 ‘지구 재부팅’은 정부, 유엔, 대학, 개인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여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는 현 시대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유엔은 청년을 대통령과 CEO만큼이나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캐버노는 “청년들은 이제 자기의 직업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면에서도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Reboot the Ocean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을 독려하는 것 등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크는 “저번에 청소년 기후 정상회담에 참여했는데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 그들은 굉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고 그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나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처럼 나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청년들과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유엔기구와 기업이 만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boot the Oceans’는 UN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청년, 기업가, 혁신가들이 모여 해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대회입니다.*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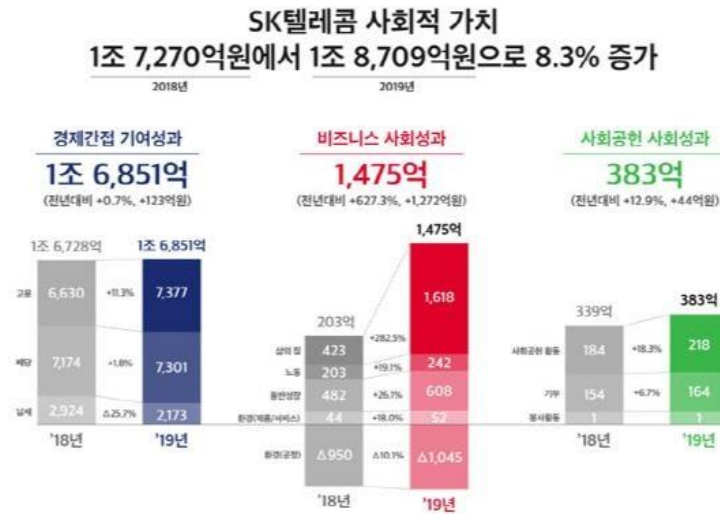
UNGC 회원 뉴스

1. "서울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없애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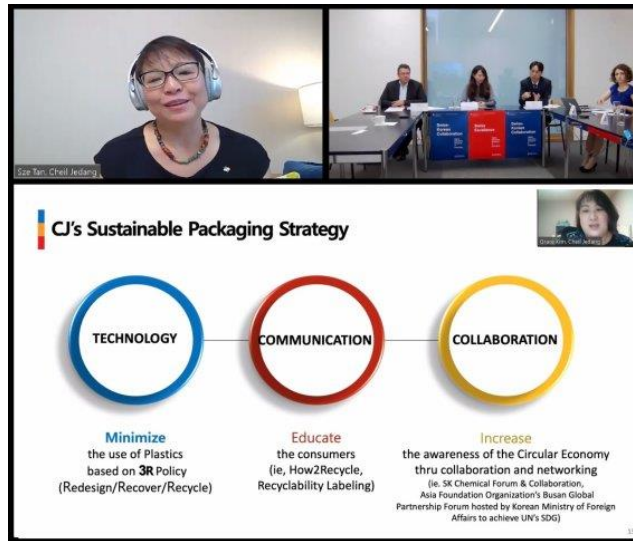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국제 포럼인 ‘CAC(Cities Against COVID-19·코로나 19 와 맞서는 도시들의 모임) 글로벌 서밋 2020’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넷 제로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
- 박 시장은 또한 이날 발표에서 서울시가 추진할 ‘친환경 정책’을 대거 공개, ▶친환경 도시 건물 확대 ▶‘그린 모빌리티’ 정책 추진 ▶자연환경 확충과 공원 역할 강화 ▶재활용 기반시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
- 먼저 도시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확대되며, 건물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 도입될 예정
- ‘그린 모빌리티’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022년까지 4만대 수준으로 늘림과 동시에 자전거 도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202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 박 시장은 “도시 과밀, 생태파괴,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앞으로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도시운영 시스템을 탈 탄소 체계로 전환하고,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산업과 일자리를 통해 서울시가 선도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2. SKT "사회적 가치 1조8709억원 창출"...전년比 8.3% 증가



- SK 텔레콤은 지난해인 2019년, 2018년 1조 7270억원 대비 8.3% 증가한 1조 8709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자체 측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힘
- SK 그룹은 지난해부터 경제적 가치(EV)와 사회적 가치(SV)를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보텀라인(DBL, Double Bottom Line) 경영 방식을 추구한다는 기치 아래 돈으로 환산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개발, SK 관계사별로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부문별로 보면,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1조 6851억원으로 전년보다 0.7% 증가, 고용·배당 부분은 각각 11.3%·1.8% 증가, 납세 부분은 5세대 이동통신(5G)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익 감소로 25.7% 감소, 삶의 질·노동·동반성장·환경 등 항목이 포함된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1475억원으로 627% 증가,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383억으로 2018년보다 13% 증가
- 다만, 환경 공정 부분의 성과는 -1045억원으로, 전년(-950억원)보다 마이너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장비 구축,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중고 휴대전화 재활용·플라스틱 배출량 저감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
- 박정호 SK 텔레콤 사장은 "코로나로 바뀐 언택트 사회, 일상에 맞게 디지털 라이프 패러다임을 혁신할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사회 위기를 ICT로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안전망 서비스 개발 등에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3. CJ제일제당 "친환경 패키징으로 '순환경제' 기여"



- CJ 제일제당은 ‘한·스위스 이노베이션 위크 2020’에서 친환경 패키징 연구개발(R&D)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역할론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힘
- ‘한·스위스 이노베이션 위크 2020’은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주최, 한국과 스위스 간 과학기술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의 산·학·정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로, 비대면 화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폐기물의 예방, 변환 및 관리 등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가 주제
- CJ 제일제당은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고 자연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자사 패키지 정책 ‘3R(친환경 포장 설계(Redesign), 재생 가능성 소재 사용(Recycle), 자연기반 친환경 원료 사용(Recover)) 전략을 소개
-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포장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패키징 연구개발의 대표 사례로 햇반 용기를 소개하며, 연간 약 340t의 플라스틱 감축과 550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
- 쓰 코테탄 CJ 제일제당 식품연구소장은 “CJ 제일제당 식품연구소는 플라스틱 및 음식물 폐기물 저감을 위한 패키징 자재의 재설계 및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기술기반 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밝힘

파이낸셜뉴스

4. LH·에너지공단,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실증사업 착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주 LH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주택 연료전지 보급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활용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
- 연료전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원이지만, 현재 기술력과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 이에 따라 두 기관이 협력해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연료전지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기관 측의 설명
- LH 는 △실증사업 대상단지(행복주택) 선정 및 연료전지 설치 △사후관리 수행 △최적의 운영방안 도출 등의 업무를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보조금 배정 △사후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상호 협력해 시행하며, 실증사업은 오는 7월 구축을 시작해 10월 중 준공될 예정
- LH 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을 구축해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등 안전한 수소경제도시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힘

조선비즈

CSR 뉴스

1. 에너지 전환 3년... 신·재생에너지 시대 한걸음 가까워졌다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 가동 영구정지를 선언하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도 더불어 성장하고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농가나 폐광지역에서도 수익사업이 추진되며 자생력을 갖춰 나가고 있음
- 빠른 보급속도 탓에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의 주민과 갈등 문제가 생기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시세가 급 변동하는 어려움도 뒤따름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발전설비 설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늘리는 추가 대책으로 보완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한국판 그린 뉴딜과 함께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

이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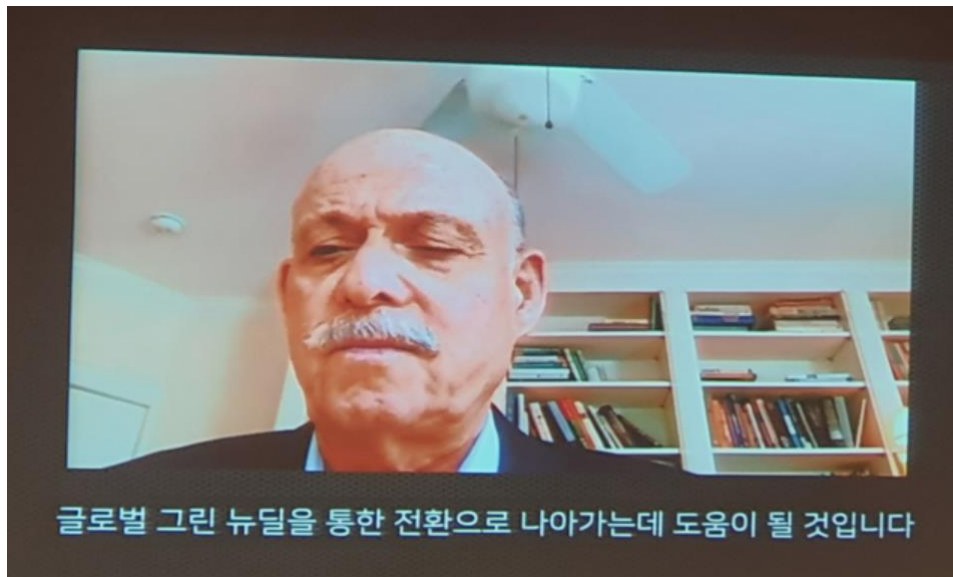
2. 기재차관 "그린뉴딜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이 논해짐
- 정부가 학계의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한 본 간담회에는 오형나 경희대 국제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와 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음
- 김용범 기획재정부 1 차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코로나 19 의 확산과 호주의 산불을 예시로 들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그는 유럽연합의 그린 딜 추진과 과거 오바마 정부의 녹색성장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예시로 들며 한국 또한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연합뉴스

3. 제러미 리프킨 “20년 내 탄소 제로로…한국은 자원-자질 충분”



- 6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린피스,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에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이 기조연설함
- 리프킨은 연설을 통해 전세계적 기후 위기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현상을 ‘2차 산업혁명의 쇠퇴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기반의 ‘건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그러나 미국이 제안하는 그린뉴딜은 개별적인 시범사업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임을 주장함
- 이에 대해 한국을 3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자원과 자질이 충분한 나라로 평가하며 한국이 이런 인프라 혁명을 주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임

동아일보

4. "여성기업 환경, 태국·칠레보다 안 좋아"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FEI, WBL 등의 세계여성기업 관련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가별 여성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하여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6월 4일 밝힘
- 우리나라는 여성기업가정신 지수(FEI)에서 77개국 중 43위, 여성기업과 법 조사(WBL)는 190개국 중에서는 57위, 여성기업 도시 지수(WE Cities) 조사는 50개국 중 41위를 기록함
- 조사 대상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여성기업 특성에 맞는 실질적 투자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협회는 여성기업 양질의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힘

파이낸셜뉴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0곳입니다.

1. COP/COE 제출회원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6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주)비지에프
- BGF 리테일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수목원관리원
- 컨선월드와이드한국
- NS 홈쇼핑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KEB 하나은행, LG 화학, 두산중공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LS 산전, 휴맥스, 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CJ 대한통운, KDB 산업은행, 포스코,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유니베라,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